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

— 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

최미경*

국문초록

이 글은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비인간캐릭터의 기능을 밝히고자 마해송의 동화 속 비인간캐릭터들을 분석한 것이다. 비인간캐릭터는 서사 속에서 인간처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 아닌 개체로, 이 논문에서는 이들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어떻게 놓여있는가를 기준으로,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마해송 동화를 통해 확인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인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둘째, 인간을 성찰하게 한다. 셋째,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넷째, 인간과 비인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을 부각한다. 이때 마지막 기능은 특히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동문학에서 비인간캐릭터는 아동의 표상과 함께 아동 앞에 전시되고, 아동 독자는 아동의 표상을 통해 비인간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대상이 아닌 행동 주체가 되어 세계와 인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인간캐릭터는 비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 장치이다. 인간이 다른 생물·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적 믿음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포스트휴

* 건국대학교, drole@daum.net

먼 생태계에서 비인간캐릭터는 그 자체로 인간과 다른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한다.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아동문학 속 비인간캐릭터의 기능을 살피는 작업은 동물권, 로봇권 등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일이자, 아동의 환경·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게 되는 경험으로서 아동문학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주제어 : 비인간캐릭터, 의인화, 포스트휴먼, 아동문학, 마해송 동화

목차

- | | |
|-----------------------|----------------------|
| 1. 들어가며 | 3.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
| 2. 인간과 비인간 사이, 비인간캐릭터 | 4. 나오며 |

1. 들어가며

비인간캐릭터는 서사 속에서 인간처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 아닌 개체다. 인간처럼 표현된 비인간캐릭터는 고대부터 존재해왔다. 때의 머리 위에 태양을 이고 지팡이를 든 태양신은 인간화된 비인간 동물신으로 기원전 2500년경 이미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인간 행세를 하는 호랑이나, 자기가 없으면 옷을 짓지 못한다고 떠벌리는 가위, 출세할 욕심으로 용궁에 간 토끼, 인간의 불효를 비판하는 까마귀 등, 여러 비인간캐릭터들이 옛이야기, 우화, 소설 등 다양한 양식으로 전해온다.

비인간캐릭터에는 흔히 ‘의인법’이라 부르는 수사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그 바탕에는 “고대의 활물론(活物論) 및 범신적(汎神的) 자연관”이 깔려 있다. 이때의 인간은 사물과 인간 아닌 생물을 자신과 대등한 인격, 혹은

우월한 신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근대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게 되자 활물론적, 범신적 자연관은 축소된다. 비인간캐릭터는 고대에서만큼 삶에 지배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할뿐더러 서사 주체로서의 비중 또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 서사에서만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² 의인화, 즉 “짐승이나 초목이나 무생물을 의인화하여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동문학 고유의 특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³

그렇다면 비인간캐릭터의 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 비인간캐릭터의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 표면 형상이 ‘인간 아닌 존재’(nonhuman being)라는 점이다. 그들은 인간 아닌 존재로 인간과 나란히 서사 속에 놓인다. 이때 ‘인간과 나란히’는 인간 캐릭터와 문자 그대로 같이 등장한다는 의미이자, 옷을 입고 말하는 등 인간적 속성을 지닌다는 의미이며,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재현함으로써 인간의 관점과 방식으로 서술된다는 의미다. 비인간캐릭터는 이처럼 인간과 나란히 놓임으로써 그 자체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사 장치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이 지점으로, 비인간캐릭터의 의미와 가치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휴먼적 관점은 우리 시대에 확장된 인식 지평의 중요한 한 축

1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인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98%EC%9D%B8%EB%B2%95&trdx=0&trdt=2\(2019.5.2.\)](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98%EC%9D%B8%EB%B2%95&trdx=0&trdt=2(2019.5.2.))

2 「푸른 사자 와니니」,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샬롯의 거미줄」, 「마당을 나온 암탉」,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화요일의 두꺼비」, <우리 천재 영당이 탐정1, 2, 3, 4>, http://www.yes24.com/24/category/bestseller?Category_Number=001001016001&sumgb=03, 2019년 5월 2일 검색, 이 글에서 시리즈 명은 < >로 표시한다.

3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도서출판 한길사, 2001, 84면.

이며 아동에게 특별히 주의 깊게 제시되어야 할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간이 다른 생물·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믿음은 현대에 이르러 크게 도전받고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 생태주의, 동물윤리철학, 환경윤리학 등을 중심으로 더는 “인간중심적인 배타적, 차별적 체계가 견고히 유지될 수 없음”을 증언하는 포스트휴머니즘 담론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포스트휴먼은 “인간중심주의의 틀 속에서 규정하는 인간을 넘어서는 형태”이며⁴, 포스트휴먼적인 것은 “인간의 개인화된 자아를 주요 주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적 위계가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사이의 횡단적 상호연계”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간중심주의는 비인간 생물·사물을 열등한 것으로 취급해 대상화, 도구화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생물의 한 종으로 인간이 지닌 어떤 요소를 억압하고 제거함으로써 인간 자신을 소외시켜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아동문학 연구에서 포스트휴먼적 접근은 주로 생태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권정생, 이원수, 마해송 등 작가와 그들의 작품을 생태주의, 생명 의식과 연결하여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연구들은 대체로 비인간 생물 캐릭터가 “의인화된 자연 및 무생물이기에 본질적으로 생태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작품의 생태주의를 잘 드러내 주는 인물적 특성을 내포”한다고⁶ 전제하고 생물의 “상호관련성”을⁷ 중심으로 비인간캐릭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

4 전세재, 「포스트휴먼: 의인화와 동물-되기의 기법」, 『문학과 환경』7-2, 문학과 환경학회, 2008, 165면.

5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62면.

6 송주연·정명숙·유수경, 「그림책 “강아지 똥”에 나타난 생태주의」, 『아동교육』18-1, 한국아동교육학회, 2009, 153면.

7 박종순, 「생태학적 사유와 『잔디숲 속의 이쁜이』」, 『한국아동문학연구』1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182면.

들 연구에 따르면 권정생의 『강아지 똥』은 ‘강아지 똥’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관계들을 맺으면서 순환성과 관계성이라는 생명원리를 보여주” 있으며,⁸ 이원수의 『잔디숲 속의 이쁜이』는 ‘이쁜이’가 “자유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만났던 수많은 관계들에서” “다른 개체를 떠나 홀로 설 수 있는 개체란 하나도 없다”는⁹ 생태학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마해송의 「사슴과 사냥개」는 사냥개 베쓰와 그를 둘러싼 비인간 동물 캐릭터들이 “마땅한 동기가 없을 때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 생명의 관계론을 강조한다.¹⁰

그러나 이 연구들은 생태주의로 무게 중심만 바꾸었을 뿐, 비인간캐릭터와 이들의 행동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 즉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런 가운데 비인간캐릭터가 드러내고 있는 환경관에 따라 동화를 분석하고자한 장혜정의 시도는 두드러진다. 장혜정은 ‘인간 중심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한다면 ‘인간중심’, 동·식물과 같은 자연물에도 도덕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면 ‘생명중심’, 생명이 없는 자연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연중심’이라고¹¹ 갈래짓고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진행된 생태연구를 아동문학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¹²

8 송주연·정명숙·유수경, 위 글, 같은 면.

9 박종순, 위 글, 같은 면.

10 조준호, 「한국 창작동화의 생명의식 연구 :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 권정생, 정재봉의 동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61면.

11 장혜정, 「아동문학 작품 속의 환경 이데올로기 분석 :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환경연구』 18-2, 2005, 47면.

12 “생태비평가들은 생태계를 역동적인 구조로 보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물학적 그물을 형성하며 생태계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생물중심적 환경론(biocentrism)은 후일에는 무생물의 연관까지도 포함하는 생태중심적 환경론(ecocentrism)으로 발전하였다.”, 김덕규, 「아동문학과 생태비평」, 『영어영문학연구』 52-4,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아동문학 속 비인간캐릭터를 바라보는 일은 동물권, 로봇권 등의 문제가 전면에 부상하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일이자, 아동의 환경·생태적 감수성을 키우게 되는 경험으로서 아동문학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가치와 의미를 확인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비인간캐릭터의 기능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마해송의 작품 속 비인간캐릭터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해송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우선, 여러 비인간캐릭터들이 장단편을 불문하고 다수 등장하며 그 종류도 모래알 같은 사물에서부터 토끼나 여우, 호랑이 같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인간캐릭터의 쓰임새도 서사 중심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뿐 아니라, 보조적 캐릭터, 서술자 등으로 다채로워, 비인간캐릭터의 기능을 고찰하기에 알맞다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해송의 작품은 앞선 연구자가 말한 바 있듯이 생명, 생태, 관계 등의 주제를 통해 ‘생명의 관계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어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을 살피기에 적합하다.¹³ 이 연구의 성과는 마해송 동화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한편, 포스트휴먼 시대의 아동문학 속 비인간캐릭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제언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0, 41면.

13 문학과지성사에서 펴낸 마해송 전집을 기본 자료로 사용한다. 마해송, 『마해송 전집1 바위나리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마해송 전집2 떡배단배』, 문학과지성사, 2013, 『마해송 전집3 모래알 고금 1·2』, 문학과지성사, 2014, 『마해송 전집4 모래알 고금 3』, 문학과지성사, 2014, 이후 각각 전집1, 전집2, 전집3, 전집4로 표기한다.

2. 인간과 비인간 사이, 비인간캐릭터

비인간캐릭터는 서사텍스트의 이야기(story) 층위에서 물적 시공간(material space-time)을 점유하는 행위 인물(actual characters)”로서 인간 아닌 개체를 뜻한다.¹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만든 이야기 속에, 인간의 속성을 지닌 채 형상화된 비인간 생물 혹은 사물이다. 포스트휴먼 관점에서 비인간캐릭터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생물, 사물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인간캐릭터는 인간의 요구에 의해 인간의 관점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그 배치에서부터 인간이 비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동문학에서 비인간캐릭터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그 양상을 앞선 연구자들이 논의한 ‘동물 이야기’의 갈래를¹⁵ 참조하여 나누어보자면, 아동문학 속 비인간캐릭터는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캐릭터는 가면 쓴 인간이라 할 수 있으며, 형상만 비인간일 뿐 행동과 사고에서부터 살아가는 모습까지 인간과 다름없는 캐릭터이다.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캐릭터는 사람 말을 하는 비인간으로, 말은 하되 사물이면 사물답게, 동물이면 동물답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캐릭터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 캐릭터는 제 3자, 즉 서술자의 눈으로 객관화된 비인간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실제 세계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비인간에 가

14 Paxson, James J., *The Poetics of Person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35.

15 타운센트(Townsend), 아버스넛(Arbuthnot), 블런트(Blount)의 ‘동물 이야기’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Townsend, John Rowe, *Written for Children*. Rowman & Littlefield, 1996, p.88; Arbuthnot, May Hill & Sutherland, Zena, *Children and Books*. Foresman Scott, 1972, p.392; Blount, Margaret, *Animal Land: The Creatures of Children's Fiction*. William Morrow & Company, 1974, p.15-20.

깝게 그려진 캐릭터다.

먼저,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는 “털가죽 속 우라-말하는 동물”이자¹⁶ “편리성을 위해 인간화된 동물”에¹⁷ 해당하는 캐릭터로, 형상만 비인간일 뿐 행동과 사고에서부터 살아가는 모습까지 인간과 다름없다. 이들은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옷을 입고 집을 짓고 학교에 다닌다. 마해송의 작품 가운데 「토끼와 원숭이」, 「학자들이 지은 집」, 「멍키와 침뽀지」, <모래알 고금>의 「꿈만이 아름다워」 편에 등장하는 토끼, 원숭이, 멍키, 침뽀지 같은 비인간캐릭터들이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에 해당한다.

하루는 몇 마리 원숭이가 뱃놀이를 하다가 큰 바람에 밀려서 토끼 나라 언덕에 닿았다. 토끼들은 처음 보는 새까만 괴상한 짐승이 무섭기도 했으나 모두 정신을 잃은 것 같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간호를 해주었다. 정신을 차린 원숭이들도 또 놀랐다. 세상에는 원숭이 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얀 털에 두 귀가 쪽 뽀친 토끼들이…… 토끼들은 토끼나라 자랑을 하고 원숭이는 원숭이 나라 자랑을 하고…… 그래서 토끼 슈슈의 아들 시시, 사사, 소소 세 토끼가 원숭이 까까, 끼끼, 꼬꼬 들과 같이 토끼 나라를 떠나서 동쪽으로 원숭이 나라를 찾아가게 되었다.¹⁸

「토끼와 원숭이」에 나오는 비인간캐릭터들은 ‘새까만 짐승’, ‘하얀 털에 두 귀가 쪽 뽀친’ 등으로 토끼와 원숭이의 외양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토끼와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나라를 세워 살고,

16 아버스넛, 위 책, 392면.

17 타운센트, 위 책, 88면.

18 『전집1』, 62-3면.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고, 뱃놀이를 하고 다친 이를 간호하기도 한다. 충을 쓰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인간만이 하는 행동을 한다.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알레고리성이 강한 우화적 작품의 등장인물들로 생물이나 사물 고유의 속성은 극히 제한적으로 드러나며, 인간이 그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가면’과 같은 도구로 사용된다.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는 말은 하되 사물이면 사물답게, 동물이면 동물답게 행동하는 캐릭터다. 이들은 옷을 입거나 면도를 하는 등 인간 고유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바위 나라와 아기별」의 바위 나라, 「박과 봉선화」의 박과 봉선화, 「여우비의 꿈」의 까마귀, 「꽃씨와 눈사람」의 꽃씨, 눈사람, 「성난 수염」의 수염, 「순이의 호랑이」의 호랑이 장난감을 비롯한 장난감들, 「민들레의 노래」의 민들레를 비롯한 식물들, 「너털 너털 깜둥이」의 금붕어들, 「사슴과 사냥개」의 비호(베쓰)¹⁹ <모래알 고금>의 「벼룩의 모임」 편에 나오는 벼룩과 빈대,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꽃감», 「경우 밝은 여우», 「개한테 진 여우», 「개에게 잡힌 호랑이», 「여우 없는 여웃골」 등 옛이야기 형식의 작품에 등장하는 호랑이, 표범, 여우, 멧개, 개 등이 여기 포함되는 캐릭터들이다. 이 갈래의 비인간캐릭터들은 스펙트럼이 넓다. 이야기를 편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인간화된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간화된 캐릭터도 있다.

19 이 작품의 주인공인 사냥개는 비호에서 베쓰로 이름이 바뀐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비호(베쓰)’로 표기한다.

나는 고금이란 이름을 가진 모래알입니다…… 한쪽은 푸른빛, 한쪽은 분홍빛으로 반짝이고, 한끝은 수정같이 맑은 한 알의 모래알을 임이식은 곱다고 만지작거리며 놀았습니다…… 임이식의 호주머니 속에 있으니까 임이식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고 놀든지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전집3 15)

<모래알 고금>의 고금은 모래알이며, 모래알이라는 형상과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라는 기본 조건을 따르고 있다. 어디까지나 모래알로 행동하는 그에게 인간처럼 말하고 사고하는 느끼는 능력이 주어진 것은 그가 서술자기 때문이다. 그를 지닌 인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두 알 수 있는 존재로 고금이 설정된 것도 서술자 역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난 수염」의 수염이나 「벼룩의 모임」 편에 나오는 벼룩도 유사한 비인간캐릭터다. 그리고 옛이야기 형식의 작품을 비롯한 「박과 봉선화」, 「여우비의 꿈」, 「꽃씨와 눈사람」, 「순이의 호랑이」, 「민들레의 노래」, 「너털너털 깎동이」처럼 메시지가 강한 작품에 등장하는 비인간캐릭터들도 ‘편의성을 위해 인간화’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비인간 개체의 기본 속성을 따르고 이를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까마귀는 시체를 찢고, 박은 꽃이 떨어지자 열매를 맺고, 물고기 깎동이는 어항 속에 산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간 개체 고유의 속성은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군의 시체를 먹기 위해 저 좋을 대로 연설하는 까마귀, 자신의 가치를 바가지에서 찾는 박, 어항 속 삶을 비루하다 여기고 물 밖으로 튀어나간 깎동이, 이들은 메시지의 운반자로서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역할을 한다. 귀염받는다 고 잘난 체하던 봉선화가 시들어 버리자 홀로 남은 박은 이렇게 말한

다. “나도 이제 예쁘고 단단한 바가지가 되어 우리 집 착한 아기와 어머니의 손에 쥐어져서 물도 뜨고 쌀도 일어 주고 봉선화 못지않게 귀여움을 받아야겠다.”²⁰ 박의 바람은 생명체로서 박 본연의 바람이 아닌 인간의 바람이다. 비인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인간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사슴과 사냥개」의 비인간캐릭터들은 다르다. 이들 역시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이나 까마귀, 박, 감둥이와는 달리 자신의 처지와 내면을 서술하기 위해 말을 한다. 어머니 사슴은 사냥개 비호(베쓰)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 미운 놈이 저놈의 사냥개야! 무엇하러 그것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²¹ 여기서 ‘그것들’은 인간이다. 이들은 자신을 사냥하는 인간과 그를 돕는 사냥개에 반발하며 비인간-동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²² 하기 위한 동물 캐릭터인 것이다.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캐릭터’는 말을 하지 않는다. 주로 사실성이 강한 작품에 등장하며 그들의 내면은 간접적으로 서술될 뿐이다. 「들국화 두 포기」의 개 복실이, 「오돌돌 한우물」의 양들, 「콩초노인의 새장」의 카나리아, 멧새, 잉꼬, <모래알 고금>의 「비둘기가 돌아오면」편의 비둘기가 여기 해당한다.

강냉이알을 따서 던져 주면…… 비둘기는 벌써 그곳을 알고 되뚝되뚝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서 날름 주워 먹고는 또 태규를 뻔히 바라보았습니다…… 뻔히 바라볼 때의 비둘기를 태규는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 태규는 비둘기를 붙들

20 『전집1』, 103면.

21 『전집2』, 67면.

22 타운센트, 앞 책, 88면.

어서 데리고 놀고 싶어졌습니다..... 비둘기는 푸르륵 날아갔습니다..... 붙들고 싶어 한 태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날아간 것만 같이 생각되었습니다.²³

「비둘기가 돌아오면」의 비둘기는 서술자인 태규의 눈으로 관찰한 행동과 상황으로 묘사된다. 비둘기의 눈으로 본 세계나 비둘기의 내면은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비둘기와 태규의 관계는 현실의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유사하다.

[표 1]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양상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캐릭터
특성	가면 쓴 인간	사람 말을 하는 비인간	객관화된 비인간
인간의 말	○	○	×
행동	인간에 가까움	비인간에 가까움	비인간에 가까움
예시	「토끼와 원숭이」의 토끼, 원숭이	「사슴과 사냥개」의 비호(베쓰)	「들국화 두 포기」의 복실이

비인간캐릭터는 비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속성을 나란히 전시하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 어디쯤인가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비인간캐릭터가 등장하는 서사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드러낼 수밖에 없다. 독자는 작중에 묘사된 비인간캐릭터의 형상을 통해 비인간 개체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비인간캐릭터의 인간적 속성을 들여다봄으로써 인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인식은 실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된다.

23 『전집4』, 336-337면. /표시는 줄바꿈.

3.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1) 비인간에 대한 인식확장

비인간캐릭터는 기본적으로 비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비인간의 동물이나 식물, 사물이 행위 인물로 서사 속에 놓일 때, 독자는 그 형상을 눈에 담고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과 처지를 들여다보게 된다. 대상 그 자체에 대한 인식 확장은 자연스럽게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확장으로 이어진다. 비인간캐릭터가 지닌 인간적 속성, 특히 그들이 표현하는 생각과 감정이 독자로 하여금 비인간을 좀 더 인간과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대상 그 자체, 즉 비인간 개체에 대한 인식 확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비인간캐릭터는,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과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이다. 이들은 인간의 행동과 관습을 흉내 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지킨다. 이들의 행동과 사고는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이나 식물, 사물의 속성을 따르기 때문에 정보를 더 많이 보여준다. 특히 동화의 주 독자는 아직 세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적은 아동으로, 이들에게는 ‘맨드라미’ 같은 서사 속에 지시된 식물 이름이나 “맨들맨들한 짙은 진홍빛 꽃이 먹음직하도록 아름답더니”²⁴ 같은 묘사도 정보가 될 수 있다.

마해송은 간결하고 섬세하게 이들 비인간캐릭터를 그리고 있다. 「꿈초 노인의 새장」에는 여러 종의 새가 등장한다. “카나리아는 노란 몸에 거뭇거뭇한 검은 무늬가 있고, 멧새는 눈 아래위의 흰 무늬가 아름다웠

24 『전집1』, 255면.

다.” 멧새는 “호르륵, 호르르르 르르르……” 울고, 잉꼬는 “아주 예쁜 새”로 서로 “종일토록 입을 맞추고” 논다. “좁쌀을 주면은 툭 쪼는데, 벌써 얇은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잘 먹는다.”²⁵ 「박과 봉선화」에서는 박의 성장을 눈앞에 보듯 그린다. “작은 키가 버쩍 자란 위에 다섯 모 진 넓적한 잎이 피고, 그 위에 또 더 큰 잎이 피었다. / 더 큰 잎은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위로 또 뻗어 올라가서 또 잎이 피었다.”²⁶ <모래알 고금>의 「벼룩의 모임」 편에는 벼룩과 이, 빈대가 나오는데 움직이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벼룩 선생은 툭! 툭툭 튀어 가는데…… 이 생원은 언제까지나 한군데서 꿈지럭거리고”²⁷ 빈대는 어슬렁어슬렁 기어간다.²⁸ 이러한 묘사들은 카나리아, 멧새, 잉꼬라는 새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박이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벼룩과 이와 빈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대상과의 관계, 즉 인간-비인간 관계에 대한 인식 확장에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비인간캐릭터는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이다. 이들은 인간에 가장 가까운 비인간캐릭터로, 해당 동물이나 식물, 사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위 인물이다. 독자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이 캐릭터들을 자신과 간단히 동일시한다. 「토끼와 원숭이」에서 토끼 귀가 잘릴 때, 「꿈만이 아름다워」에서 토끼가 복남이에게 빵조각을 줄 때, 토끼는 인간의 배경으로서 대상화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고, 다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온다.

25 위 책, 144-146면.

26 위 책, 95면.

27 『전집3』, 408면.

28 위 책, 417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처럼 말하고, 인간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 아닌 존재’가 이야기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인간-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공감하고 그들이 인간-우리와 마찬가지로 세계의 일부임을,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더 쉽게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감과 인정은, 비인간-타자를 인간-우리에게로 끌어당긴다. 비인간을 지성과 감정이 없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들과 인간의 교집합을 의도적으로 지워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거리를 만들고, 인간이 인간 아닌 존재를 대상화·타자화하고, 사용자로서 인간의 지위를 자연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이나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 역시 생각과 감정을 지닌 주체로 표현된다.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언어를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자신을 표현한다. 「봄의 속삭임」에는 봄별을 받은 파리아는 기뻐하며 “야야! 빛이다! 눈부신 빛이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오는가 보다!”고 속삭이고²⁹, 「사슴과 사냥개」의 산돼지는 “우리들을 못살게 구는 그것들”이라며³⁰ 자신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을 비난한다.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의 감정과 생각은 인간의 눈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술된다. 「콩초 노인의 새장」의 잉꼬 한 쌍은 서로를 위하는 다정한 존재다. “수컷이 먼저 죽은 모양이어요. 암컷이 날개를 활짝 펴서 수컷을 덮어 준 채 둘이 다 죽어 있어요.”³¹ 「들국화 두 포기」의 개 복실이는 영아의 옷을 진창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힐끗힐끗 결눈질을 하기도 하고, 두 손으로 입을 쓰다듬기도 하며 웅크

29 『전집1』, 278면.

30 『전집2』, 79면.

31 『전집1』, 147면.

리고 앉아”³² 미안해한다.

동화의 주 독자인 아동의 물활론적 특성은 비인간캐릭터의 자기표현을 쉽게 받아들이게끔 한다. 아동 독자에게 동화 속 비인간캐릭터는 서로 아꼈 줄 알고, 인간과도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봄을 기뻐하며 반기고,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을 원망하는, 감정을 지닌 존재로 다가온다. 표현 대상에서 표현 주체로 타자에서 우리로, 비인간캐릭터를 통해 인간-비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는 것이다.

비인간캐릭터에 대한 이러한 인식 확장에는 때때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인간 개체의 의인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개체가 가진 고유의 성질 일부가 탈락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적 속성이 그 자리에 끼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인간캐릭터에 대한 묘사와 그들의 자기표현은 실제 생물이거나 사물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를 습득하게 하고, 이로 인해 아동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으며, 때때로 환경윤리적으로 바르지 않게 표현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주로 심리학자와 생물학자를 중심으로 비인간 동물 캐릭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적되었다. 그들은 “비인간 동물을 의인화하는 표현에 일상적으로 노출된다면 (아이들이) 동물을 동물 옷을 입은 인간처럼 보는 어른으로 성장하게”³³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흔히 밤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동물에 대한 감상적인 태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디즈니의 <밤비>(1942)처럼 동물을 인간화하여 감상적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을 본 아이들이 동물에 대해 그릇된 정보와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

32 위 책, 전집 312면.

33 Jason Goldman, “When Animals Act Like People in Stories, Kids Can’t Learn”, *Scientific American*, 2014.3.27,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thoughtful-animal/when-animals-act-like-people-in-stories-kids-cant-learn/>, 2019년 5월 2일 검색.

다.³⁴ 그 결과 서식지에서 산짐승의 새끼를 데려오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데려온 새끼들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기도 어렵고, 살아남는다고 해도 야생성과 위험성 때문에 천덕꾸러기가 된다.

감상적 접근뿐 아니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정보 전달도 문제가 된다. 「바위나리와 아기별」에는 바위나리를 한 가지에 빨강, 파랑, 노랑, 흰 꽃이 피어 “아주 함빡 오색이 영롱하게 여러 가지 꽃이 피어난”³⁵ 오색꽃이라고 설명한다. <모래알 고금>의 「벼룩의 모임」 벼룩의 수명이 사십일이라고 일러준다.³⁶ 그러나 벼룩은 125일까지 살 수 있고³⁷ 작품 속 바위나리와 같은 식물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실제 ‘바위나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돌단풍’과는 완전히 다른 꽃이다. 실제 비인간 개체와 동화 속 정보의 충돌로 그릇된 인식과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³⁸

2) 인간에 대한 성찰

비인간캐릭터는 비인간을 인간과 나란히 전시함으로써 인간성을 폭로하고 재인식하게 한다. 특히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 ‘동물로

34 “디즈니 세계 속 동물은 사람보다 더 귀엽다. 늑대는 새끼 고양이처럼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밤비 신드롬이다. 디즈니 영화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일단 감상적인 의 인화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서 그런 영화가 계속 만들어졌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본적인 생물학적 사실을 잘못 전달한다.” Matt Cartmill, *A View to a Death in the Morning Hunting and Nature Through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180, Quated in Cleveland Amory, *Mankind? Our Incredible War on Wildlife*, Harper & Row, 1975, p. 92-3.

35 『전집1』, 16면.

36 『전집2』, 416면.

37 “벼룩의 수명은 환경에 따라 대체로 38~125일”, 주종윤, 『인제기생충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3, 449면.

38 감상적 접근과 부정확한 정보의 문제는 로봇 같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물 인격체나 자동차 같은 비인간 사물 캐릭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에서는 인간형 로봇이나, 사람처럼 눈과 입이 달린 자동차 등 비인간캐릭터가 흔히 등장하는데, 이들은 종종 고유의 물성(物性)이 의도적으로 누락되며, 매우 인간적·인간친화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 문제는 비인간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비인간캐릭터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도 무방할 것이다.

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가 자주 이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교만은 마해송이 동화에서 자주 다룬 주제다. 「학자들이 지은 집」의 학자 토끼와 「박과 봉선화」, 「꽃씨와 눈사람」, 「너털너털 깜둥이」, 「게한테 진 여우」의 봉선화와 눈사람, 깜둥이, 여우는 혼자 잘난 줄 알고 타인을 무시하다 자신이 빈한한 성품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캐릭터들이다. 「학자들이 지은 집」의 학자 토끼는 “집 같은 집은 하나도 없군요. 지금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요?”라고³⁹ 비웃다가 “입내를 내어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집을 짓는다는 솜씨가 문구명 창구명도 마련할 줄 몰라”⁴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너털너털 깜둥이」의 깜둥이도 “너는 모를 거다. 가게에서 파는 것이 있다. 예쁜 갑에 든 것이다. 비싼 것이다…… 니들 거지 같은 것들은 한번 먹으면 놀라 죽을 것이다”고⁴¹ 금붕어들을 무시하다가 “어항 밖으로 마룻바닥에 나가떨어져”⁴² 목숨을 잃고 만다.

비인간캐릭터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폭력성, 나약함과 비겁함을 드러 내기도 한다. 「여우비의 꿈」에서는 눈앞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까마귀를 통해 폭로된다. 까마귀들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영령을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옥신각신하다 가부(可否)로 결정하기로 한다. “안 된다는 편이 백!”/“먹어야 한다는 편이 스물일곱!” …… “백보다 스물일곱이 많지.”/“스물일곱이 많다.”/“스물일곱이 이겼다!”⁴³ 「토끼와 원숭이」에서는 거리낌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강자의 무도함을

39 『전집1』, 215면.

40 앞 책, 216-7면.

41 위 책, 273면.

42 위 책, 276면.

43 위 책, 112면.

보여준다. 토끼 나라에 쳐들어온 원숭이는 ‘탕’을 쏘아 토끼를 죽인다. “탕 한 방에 토끼 한두 마리씩 죽었다. / 토끼들은 이리저리 피하면서 탕에 맞아 픽픽 쓰러졌다.” 토끼 귀를 가위로 자르기까지 한다.⁴⁴ 「멍키와 침팬지」에서는 권력의 폭력성과 잔혹함을 보여준다. 힘세고 덩치 큰 멍키는 깡패 꼬나풀을 거느리고 왕 노릇을 하며 멍키들을 못살게 군다.

맛있는 먹이를 갖다 바치지 않거나 꼬나풀의 말을 듣지 않는 멍키는 벌을 주었다. / 벌의 첫째는 끈지를 잘라서 표적을 삼는 것이었다. 그다음에 또 걸리면 궁둥이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다. / 여러 놈이 달려들어 가죽을 짹 벗기면 피가 맺혀서 시뻘겋게 되는 것이었다. / 그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얼굴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었다.⁴⁵

이들은 강자 앞에서 약한 존재로 돌변한다. “왕 멍키 같은 것은 한쪽 발로 짓밟을 수도 있겠고 두 손가락으로 집어 팽개칠 수도 있을 만큼 힘이 센 침팬지들” 앞에서 “꼬나풀 멍키들은 눈이 뚱그래져서 발발 떨고 있었다.”⁴⁶ 핍박받으면서도 맞서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비겁함과 수동성도 보여준다. 왕을 몰아내는 작대기 내기에서 아버지 멍키는 보복당할까 두려워 다른 멍키들과 반대쪽에 작대기를 던지고⁴⁷ 「호랑이, 꽃감」의 늑대는 호랑이들도 전해오는 이야기만 믿고 굴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꽃감에 겁을 먹고 “꽃감님을 치러 들어간다니 그런 말이 될 말이냐!”며 야단을 친다.⁴⁸

44 위 책, 65-7면.

45 위 책, 303면.

46 앞 책, 305면.

47 위 책, 307면.

48 위 책, 91면.

비인간캐릭터들이 보여주는 인간성은 부정적인 면이 주를 이루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

집에는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늙은 아버지 토끼 슈슈가 혼자서 울고 있었다. / 원숭이 까까는 이 꼴을 차마 보고 있지 못하고, / ‘아아, 미안하다. 그러나 시시, 나는 원숭이지만 원숭이 나라를 미워합니다. 당신들의 원수를 갚아 드리리다.’ / 마음으로 맹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까까는 돌아갔다.⁴⁹

토끼와 원숭이」의 ‘원숭이 까까’는 동정심을, 「호랑이, 꽃감」의 ‘젊은 호랑이들은 “꽃감의 밤이 되기 전에 한번 힘을 합해서 싸워나 보고 죽자고 생각하”」⁵⁰ 용기를, 「박과 봉선화」의 박은 못생겼다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나는 또 이 모양대로 귀여움도 받고 쓸모도 있다”며⁵¹ 겸손을 부각한다.

한편,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두 캐릭터는 더 근원적인 인간성을 드러낸다. 이들은 고독과 그리움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날마다 날마다 노래를 부르면서 동무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찾아와 주는 동무는 없”⁵² 바위나리와 “병들어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바위나리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⁵³ 아기별, 이 두 캐릭터는 고독과 그리움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잃는다. 이들이 드러내는 것은 실상 인간의 욕망이고, 이들의 죽음은 이러한 욕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근원적인지 암시한다. 이처럼 비인간캐릭터는 부정적 인간성을 폭로하

49 위 책, 66면.

50 앞 책, 91면.

51 위 책, 96면.

52 위 책, 18면.

53 위 책, 21면.

고 긍정적 인간성을 부각하고, 인간성의 근원을 탐색함으로써 인간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게 한다.

3) 인간-비인간의 관계 전시

비인간캐릭터는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놓인 서사 주체로 그 배치에서부터 인간과의 관계가 전시된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라 할 수 있는데, 비인간캐릭터가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언어로 형상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은 해당 동물이나 식물, 사물로서 서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가면 쓴 인간으로 인간의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비인간 관계는 극히 인간중심적이다. 「학자들이 지은 집」의 토끼들은 목적을 위해 도구화됨으로써 토끼라는 개체의 고유한 속성이 상당 부분 휘발된 존재다. 이들은 숲에서 다른 동물과 어우러져 사는 뒷다리 튼튼한 짐승이 아니라 토끼들만 사는 나라에서 성당에 다니고 옷감을 짜는 ‘토끼’라고 불리고 그에 가까운 몇 가지 속성을 지닌 인간이다. 「학자들이 지은 집」에서 ‘토끼’들은 인간과 실제 세계를 공유하는 고유한 개체라 할 수 없는, 인간과의 연결고리가 모호한 존재인 것이다. 이는 1절 ‘비인간에 대한 인식 확장’에서 언급한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에 대한 주장, ‘비인간 형상에 부여된 인간적 속성을 통해 동일시하고, 동일시를 통해 이들이 우리 인간과 같은 존재임을 이해한다’는 서술과 언뜻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때의 이해는 비인간-타자를 인간-나에게로 끌어당긴, 어디까지나 인간중심적인 이해다. 비인간을 비인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비인간으로 말하는 비인간’은 인간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개체의 기본 속성을 유지한다. 「박과 봉선화」의 박은 울타리와 지붕 위에 박꽃을 활짝 피우고 “여기를 좀 봐! 박꽃이 많이 피었으니 좀 봐!”라고⁵⁴, 봉선화는 “나같이 행복한 꽃이 또 있단 말”이냐며⁵⁵ 박으로서, 봉선화로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 쓰인다. “물을 줄 때에 아기가 무엇에다 시원한 물을 담아 오든? 그제 박이 아니냐! 바가지지! 물을 줄 때에는 아주 긴하거든!”, “여름 밤이면 색시들은 봉선화 따다가…… 하룻밤을 같이 자면 이튿날 아침이면 손톱 발톱이 빨강게 물들어서 예뻐지지 않겠수.”⁵⁶ 박과 봉선화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것은 ‘쓸모’다. 그리고 이 쓸모 역시 박과 봉선화가 아닌 인간의 쓸모다.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캐릭터’는 개체의 속성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 유형의 캐릭터 역시 인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용될 때는 인간중심적 관계를 보여준다. 「들국화 두 포기」의 복실이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할머니의 죽음을 알아챈 ‘영물’이다. 복실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고깃국에 밥을 말아서 주어도 영 먹지를 앓”는다.⁵⁷ 눈병이 걸린 복실이를 보고 아이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슬퍼서 울어서 그랬”다고 여긴다. 결국 복실이는 할머니 무덤 옆에 묻히고, 죽은 개의 무덤가에는 할머니의 무덤과 똑같이 새하얀 들국화가 핀다.⁵⁸ 「들국화 두 포기」의 비인간캐릭터 복실이는 실제 개체에 가깝게 객관적

54 『전집1』, 101면.

55 위 책, 198면.

56 앞 책, 97면.

57 위 책, 319면.

58 위 책, 321-2면.

으로 서술되었음에도 철저하게 타자화되어 인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개라는 생명으로서 복실이의 욕망과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양 취급되며, 오로지 할머니-인간의 부가물로 쓰인다.

마해송 동화 가운데 몇몇 작품은 인간중심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 도구로 다루어지기를 거부하는 비인간캐릭터, 인간의 우위에 선 비인간캐릭터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 양상, 인간과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 캐릭터의 입을 통해, 혹은 직접 서술을 통해서 나타난다. 마해송은 부정적 인간성을 지닌 비인간캐릭터로 하여금 인간과 문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게함으로써 이를 비판한다. 「학자들이 지은 집」에서 교만한 토끼 학자는 “사람 사는 나라에서는 모두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집을 짓고 산다오”라고⁵⁹ 빠진다. 「계한테 진 여우」에는 “어려서는 사람의 집에서 자라나고 커서는 곡마단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다가 산으로 도망쳐 왔다는 여우”가⁶⁰ 등장해, 세상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잘난 체한다. 그런데 그 세상 이야기라는 게 ‘우유, 비스킷’ 같은 인간 세상 이야기로 그의 교만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캐릭터’가 등장하는 동화, 「오돌돌 한우물」에서는 직접 서술로 인간의 탐욕을 비판한다. “그 사람들은 모두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었고, 서로 싸우기를 잘했다. 터전을 빼앗아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논을 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붙들려는 것이었다.”⁶¹

둘째 양상, 도구로 다루어지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거부하는 비

59 위 책, 215면.

60 위 책, 230면.

61 앞 책, 104면.

인간캐릭터로는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캐릭터’인 「순이의 호랑이」의 호랑이와 「사슴과 사냥개」의 비호(베스)가 있다. 호랑이는 순이에게 가장 사람 받는 장난감으로 자기가 제일이라고 빼기다가 “순이가 엿 먹고 떡 먹고 사탕 먹은 손가락으로 매만진…… 몸뚱이에 온통 개미가 떼를 지어 달려들”⁶² 순이에게 버림받고 만다. 장난감 호랑이는 인간중심적인 인간-비인간 관계와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동시에 드러낸다. 박과 봉선화에게 인간의 ‘쓸모’는 절대적 가치였으나, 장난감 호랑이에게는 되레 해가 된다. 인간에게 도구로서 대상화되는 일이 비인간 개체에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사슴과 사냥개」의 비호(베스)는 여기서 나아가 도구로 다루어지기를 거부하고 자신과 같은 비인간 동물과 연대한다. 비호(베스)는 ‘사냥개’로 인간을 위해 살고 있을 때는 ‘비호’라는 이름으로, 뒷에 걸렸다가 숲속 동물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난 뒤로는 ‘베쓰’로 이름이 바뀐다. 베쓰가 된 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 짓지 않는 개가 되어 ‘똥개’라고 불리면서도 더는 인간에게 봉사하지 않는다. 어른이 염소를 죽이려하자 그를 공격하기까지 한다. 비호(베쓰)를 비롯한 비인간캐릭터들은 인간을 적대하고 동물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사슴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냥개-비호(베쓰)를 살리기 위해 깊고 깊은 골짜기의 약풀을 구해온다. 딱따구리와 소쩍새는 사슴을 돕는다. 그렇게 살아난 사냥개는 자신을 데리고 온 ‘학생’을 제외한 다른 인간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염소와 교감하며 지낸다.

셋째 양상, 인간의 우위에 선 비인간캐릭터로는 「성난 수염」의 수염, <모래알 고금>의 고금과 「벼룩의 모임」 편의 벼룩이 있다. 이들은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로, 「성난 수염」의 수염은 영감의 사나운 성품

62 위 책, 244면.

의 원인으로 그 성품을 못마땅해 한다.

한 가락 수염이 푸념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잘못인가 보야!”……
“그래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들 수염은 말야. 감때 사납게 굴라고 생긴 것이 아닌데 침을 발라서 배배 꼬아서 바짝 치켜 올리니 그래서 이 영감이 감때가 사납게 되는 모양이야.”……“우리 아홉 형제는 오늘 밤으로 빠져 버리자! 그리고 마음 착한 다른 사람의 수염이 되자!”⁶³

수염들이 빠져버리자 감때 영감은 풀이 죽어 히죽히죽 웃는다. 인간 캐릭터 가운데 아무도 어찌지 못한 감때 영감의 성품을 비인간캐릭터인 수염이 바꾼 것이다. <모래알 고금> 고금도 임이식의 호주머니에 든 한 알의 모래알에 불과하지만, 제 사는 곳에 머물러 있는 임이식과는 달리 세계를 돌아다니며 온갖 경험을 한다. 그는 인간 캐릭터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평가하기도 한다.

임이식은 욕심이 많고 심술꾸러기에 번덕쟁이였기 때문에 한 알의 모래알 같은 것은 오랫동안 가지고 놀지는 않았습시다. / ‘오달오의 사랑채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벌써 모래알 고금은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말았습시다.⁶⁴

그뿐만 아니라 우연히 본 사진 속 남녀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에서부터, 1350년 전 신라 진평왕 때 설녀의 일까지 온갖 일을 알고 있는 거의 전지(全知)한 존재다. 「벼룩의 모임」의 벼룩도 경험도 아는 것도 많은 캐

63 앞 책, 207면.

64 위 책, 15면.

릭터다. 곳곳에서 모인 벼룩들이 기차 안에 모여 서로 아는 이야기 한 자락씩 펼쳐놓는데, ‘빈대 환갑잔치’, ‘옛날 장군’, ‘자식 차별하는 부잣집 아버지’ 등 알고 있는 이야기가 가지가지다. 이들은 “젊고 마음 좋은 장군을 살려”내고 “부자가 된 만아들을 살살 꺾어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는 등 인간의 삶을 입맛대로 바꾸기도 한다. 이들도 고금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평가한다. “그야 능구렁이 어른들보다 어린이가 좋지 뭐냐! 톡! 할 말도 못하고 지질구레 사는 어른들은 톡! 맛도 없는 거야!”⁶⁵

고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기보다 서술자로서 일관되게 ‘인간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고금에 비해 벼룩이 하는 이야기는 더 ‘벼룩 중심적’이다. 이들은 모래알처럼 오래 사는 게 잘난 거냐며, 자신들이야말로 알맞게 산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수명이 사십 년이라고 말할 때도, 그 일 년은 인간이 아니라 벼룩의 일 년이다. 이들을 지켜보던 모래알 고금도 “사십 일을 벼룩들은 사십 년이라고 합니다. 단 사십 일 동안 사는 것을 알맞다고 합니다.”라고⁶⁶ 말하며 벼룩들이 나름의 질서와 규칙 안에서 살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들 비인간캐릭터는 인간에 의해 도구화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보다 많은 것을 아는,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로 그려진 것이다. 이때 ‘비인간으로서 말하는 비인간’은 인간중심적 인간-비인간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들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주어진 목소리를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드러내는 데 쓴다면 말이다.

그러나 인간중심적 인간-비인간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 비인간 캐릭터 또한 기울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한다. 비호

65 『전집3』, 412-8면.

66 앞 책, 416면.

(베쓰)는 ‘똥개’라는 인간의 평가를 무시하고 인간의 쓸모대로 움직이지 않으려 했지만 끝내 인간의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까지 보이는”⁶⁷ 그의 얼굴도, “정말 똥개가 아니었어! 짙는 소리가 호랑이 소리만큼 굉장했다”⁶⁸ 치켜세움도 결국 인간의 평가에 의한 것이다. 비인간 동물의 연대도 개와 염소의 ‘우정’으로 그려지며 주인을 따라 죽은 복실이의 충성심처럼 인간적 미덕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 부각

마지막으로 비인간캐릭터는 인간과 비인간, 즉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인간은 자연과 구별되는 자신들만의 본성을 스스로 발명해냄으로써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냈다. “인간은 인간적으로 될수록 동시에 더 비자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⁶⁹ 이때 “아동은 잃어버린 연결고리”로⁷⁰ 부각된다. 아동은 “성인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시적이며, 말 그대로 동물에 가깝다”고⁷¹ 여겨진다.

특히 아동문학은 비인간캐릭터에 담겨있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아동의 표상과 함께 아동의 눈앞에 제시한다. 아동의 표상은 아동 등장인물, 혹은 ‘작은’ 비인간 개체로 나타난다. 아동 독자는 토끼, 새순, 새싹 등 작고 어린 생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토끼와 호랑이 가운데 작은 토

67 『전집1』, 95면.

68 위 책, 98면.

69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박종대 역, 『세상을 알라』, 열린책들, 2018, 112면.

70 Coslett, Tess, “Child’s place in nature: Talking animals in Victorian children’s fiction”, *Nineteenth-Century Contexts* vol.2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481.

71 M. Taine, “the Acquisition of Language by Children”, *Mind*, vol.2 no.6, Oxford University Press, 1877, p.258.

끼를 성인에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아동은 물할론적 사고를 통해 비인간 개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아이들은 인형이나 로봇 등 인간의 형상을 모사한 비인간 개체를 종종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낀다. 이러한 속성에 기대어 아동 캐릭터와 아동 독자는 비인간캐릭터와 소통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여겨진다. 아동은 인간(성인)과 비인간 사이의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된다. 이는 아동문학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세계와 인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이 타자가 아닌 행동 주체로서 아동 독자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인간캐릭터가 부각하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은, 마해송 동화에서 다음 두 양상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표상으로서 비인간캐릭터’와 ‘비인간캐릭터와 소통하는 아동캐릭터’가 그것인데, 마해송 동화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오돌돌 한우물」의 ‘절름발이 소년’은 “욕심 사나운 어른”과는 달리 “마음 착한” 아이로⁷² 양을 탐내는 어른들에 맞서 홀로 양을 지킨다. 그는 활로 양을 쏘아 맞히려는 어른을 막아서다 손에 화살을 맞는다. 훗날 그는 양들 덕분에 재난에서 홀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사슴과 사냥개」에서 ‘학생’도 ‘비호(베쓰)’와 유일하게 소통하는 존재다. 그는 비호(베쓰)가 짓지 않는다고 구박을 받을 때마다 감싸주고, 엉뚱하게 염소 울타리로 뛰어가도 “우리 ‘베쓰’가 좋은 데를 아는구나!”라고 그의 마음을 알아준다.⁷³ 무언가를 명령하기보다 놀아주고, 비호(베쓰)가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어 준 이도 학생이다. 「모래알 고금」에서 고금도 임이식이란 ‘아이’의 주머니에 든 모래알로 자신을 소개하고, 벼룩도 “능구렁이 같은 어린이가

72 『전집1』, 105면, 270면 참조.

73 『전집2』, 93면.

좋지 뭐냐”며⁷⁴ 아이 편에 선다. 「들국화 두 포기」에서도 복실이와 소통하고, 복실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물은 정수와 영아, 두 아이다.⁷⁵ 「내가 기를 테야」에서 국화 새순을 기르겠다고 다짐하는 이 역시 아동이다.⁷⁶

그러나 비인간캐릭터와 더불어 나타나는 아동의 표상은 아동의 관심사대신, 작가가 인식하는 세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드러낸다. 아동은 인간과 세계의 연결고리로서만 기능할 뿐 주체가 되지 못한다. 일례로 ‘절름발이 소년’과 ‘학생’은 자연을 도구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 정수와 영아는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는 영물로서 개를 치하하기 위한 인물로만 등장할 뿐, 그 외 성격은 주어져 있지 않다. 이는 마해송 동화가 “성인이 보는 아동 세계에 머무르고 마는 것”이라는⁷⁷ 지적과도 이어진다. 「여우비의 꿈」에서 영애의 역할은 이러한 면모를 확연히 드러낸다. 영애는 까마귀의 말을 알아듣는데, 이 아이는 말하는 까마귀를 보고도 호기심 한 올 내비치지 않는다. 그는 아동다운 캐릭터라기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 캐릭터에 가깝다.

아동 캐릭터의 이러한 특징은 마해송 동화에서 상대적으로 ‘아동의 표상으로서 비인간캐릭터’가 뚜렷하지 않은 점과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아동의 표상으로서 비인간캐릭터’는 ‘작은’, ‘놀이하기 좋아하는’, ‘자라나는’, ‘어린’ 등 아동의 속성을 부여받음으로서 아동처럼 여겨질 수 있는 비인간캐릭터다. 마해송 동화에서는 「경우 밝은 여우», 「게한테 진 여우», 「개에게 잡힌 호랑이」 같은 옛이야기 형식의 동화에 등장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캐릭터인 여우, 게, 개, 「꽃씨와 눈사람」에서 눈사람 아래서 막

74 『전집3』, 418면.

75 『전집1』, 312면.

76 위 책, 188면.

77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43면 참조.

씩을 틔운 ‘자라나는 어린’ 꽃씨, 노래하고 춤추고, 숨바꼭질하고 달음질 치면서⁷⁸ 노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의 바위나리와 아기별, 「너덜너덜 껌 등이」의 푼푼이, 얼룩이, 점박이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아동다운 속성은 매우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잔디숲 속의 이쁜이』의 ‘이쁜이’나 『강아지 똥』의 ‘강아지 똥’처럼 하나의 아동 상을 만들어 낼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들 역시 ‘비인간캐릭터와 소통하는 아동캐릭터’와 마찬가지로 아동독자가 동일시하기 쉬운 아동다운 캐릭터라기보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는 캐릭터에 가깝다.

이는 인간중심적인 인간-비인간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움직이는 마해송 동화의 비인간캐릭터의 특징과도 이어진다. 비인간의 형상이라는 표면 아래 이면의 의미는 인간이 내는 목소리이듯, 잃어버린 세계로서 비인간과 인간의 연결고리로 아동을 부각하고 있으나, 결국 그 아동이라는 표면 형상 아래 이면의 의미는 성인, 즉 작가가 내는 목소리인 것이다.

4. 나오며

비인간캐릭터는 인간과 인간 아닌 존재의 관계를 드러내는 서사 장치로, 인간이 다른 생물·사물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대적 믿음이 크게 도전받고 있는 지금, 포스트휴먼 생태계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유용한 문학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 생명 없는 사물이 생각하고 인간 아닌 생물이 말할 때, 우리는 그 비인간캐릭터가 표면 형상으로 취

78 위 책, 19면.

하는 사물 혹은 생물에 대해, 그리고 비인간캐릭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추는 우리 인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들과 우리의 삶을 들여다 본다. 그들이 ‘인간의 말을 하는 비인간’이건, ‘비인간의 말을 하는 비인간’이건, ‘객관적으로 서술된 비인간’이건, 비인간캐릭터는 그 자체로 “인간과 다른 대상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한다.⁷⁹

이 논문에서는 마해송의 동화를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아동문학에서 비인간캐릭터가 비인간과 인간 사이 놓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비인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둘째, 인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셋째, 인간-비인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넷째, 인간과 비인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을 부각한다. 이때 마지막 기능은 특히 아동문학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동문학에서 비인간캐릭터는 아동의 표상과 함께 아동 앞에 전시되고, 아동 독자는 아동의 표상을 통해 비인간캐릭터와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대상이 아닌 행동 주체가 되어 세계와 인간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비인간 개체를 인간화하는 작업은, “사물적인 것을 의인화하기보다 오히려 인물로 꾸미는 일을 통해 사물적인 것을 더욱더 당당하게 형상화하는 것이 그 과제”⁸⁰라고 했다. 우리는 마해송 동화의 비인간캐릭터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부여받고,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때때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물적인 것 그 자체로 더욱 당당하게 형상화됨으로써, 비인간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구성하는

79 Paxson, 앞 책, p.31.

80 발터 벤야민, 조민영 역, 『독일비애극의 원천』, 새물결, 2008, 278면.

주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인간중심적 사고가 비인간과 연결된 인간성 일부를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그러나 마해송 동화의 비인간캐릭터는 인간-비인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는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아동이 결국 주체가 되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마해송 동화의 아동 캐릭터, 혹은 아동을 표상하는 캐릭터가 독자의 관심사를 운반하기보다, 작가가 인식하는 세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이들은 끝내 인간중심적 가치판단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마해송, 『마해송 전집1 바위나라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_____, 『마해송 전집2 떡배단배』, 문학과지성사, 2013.

_____, 『마해송 전집3 모래알 고금 1·2』, 문학과지성사, 2014.

_____, 『마해송 전집4 모래알 고금 3』, 문학과지성사, 2014.

2. 논문 및 평론

김덕규, 「아동문학과 생태비평」, 『영어영문학연구』52-4,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2010, 39-59면.

박종순, 「생태학적 사유와 『잔디숲 속의 이쁜이』」, 『한국아동문학연구』19, 한국아동문학학회, 2010, 155-183면.

송주연·정명숙·유수경, 「그림책 “강아지 똥”에 나타난 생태주의」, 『아동교육』18-1, 한국 아동교육학회, 2009, 143-156면.

장혜정, 「아동문학 작품 속의 환경 이데올로기 분석 :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환경연구』18-2, 2005, 44-54면.

전세재, 「포스트휴먼: 의인화와 동물·되기의 기법」, 『문학과 환경』7-2, 문학과 환경학회, 2008, 163-178면.

조준호, 「한국 창작동화의 생명의식 연구 : 마해송, 강소천, 김요섭, 권정생, 정채봉의 동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4.

Cosslett, Tess, “Child’s place in nature: Talking animals in Victorian children’s fiction”, *Nineteenth-Century Contexts* vol.23,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2, p.475-495.

Taine, M., “the Acquisition of Language by Children”, *Mind*, vol.2 no.6, Oxford University Press, 1877, 252-259.

3. 단행본

로지 브라이도티, 『포스트휴먼』, 아카넷, 2015.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히트, 박종대 역, 『세상을 알라』, 열린책들, 2018.

발터 벤야민, 조민영 역, 『독일비애극의 원천』, 새물결, 2008.

주중윤, 『인체기생충학』,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3.

이재철, 『한국아동문학작가론』, 개문사, 1983.

이원수, 『아동문학입문』, 한길사, 2001.

Arbuthnot, May Hill & Sutherland, Zena, *Children and Books*. Foresman Scott, 1972.

Blount, Margaret, *Animal Land: The Creatures of Children's Fiction*. William Morrow & Company, 1974.

Matt Cartmill, *A View to a Death in the Morning Hunting and Nature Through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Paxson, James J., *The Poetics of Person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Townsend, John Rowe, *Written for Children*. Rowman & Littlefield, 1996.

4.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인법,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C%9D%98%EC%9D%B8%EB%B2%95&ridx=0&tot=2>, (2019.5.2)

Jason Goldman, “When Animals Act Like People in Stories, Kids Can’t Learn”, *Scientific American*, 2014.3.27,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thoughtful-animal/when-animals-act-like-people-in-stories-kids-cant-learn/> (2019.5.2.)

Abstract

A Study on Posthumanitarian Function of The Nonhuman Characters in Children's Literature

— Focus on The Works of Ma Haesong —

Choi, Mikioung

As part of the work to ascertain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nonhuman character shown in children's literature, the goal of this article is in revealing the function of the nonhuman character from a posthuman perspective, and for this purpose, the nonhuman characters in the works of Ma Haesong were analyzed. In this abstract, nonhuman characters are nonhuman beings who feel, speak and act like humans in the epic, and based on how nonhuman characters lie between humans and nonhuman characters, the nonhuman characters in children's literatur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nonhuman speaking as human beings,' 'nonhuman speaking as nonhuman beings,' and 'objectively described nonhuman beings.' As a result, the nonhuman character's posthuman functions identified through the Ma Haesong's works are as follows. First, expand the perception of nonhumanity, second, to reflect on human beings, third, to suggest humannonhuman relationships, fourth, it highlights children as a lost link between humans and nonhuman beings.

At this time, the last func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especially in

children's literature. In children's literature, nonhuman characters are displayed in front of children, along with their children's representations. This is because child readers identify themselves as children's representations, and children as 'lost links between the world and humans' can connect with themselves as actors, not as reactors.

Nonhuman characters are epic devices that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nonhuman and nonhuman beings. Now that modern belief that humans have an edge over other creatures is greatly challenged, the nonhuman character in the posthumans ecosystem itself creates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other objects. From a posthumanitarian perspective, the task of examining the functions of nonhuman characters in children's literature is meaningful in that it can serve the needs of our society, where issues such as animal rights and robot rights are emerging at the forefront, and as an experience to foster children's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ensibilities, it can be a process to find meaning in children's literature.

■ Keywords: nonhuman being character, anthromorphization, posthuman, children's literature, Ma Haesong

■ 논문접수일: 2019. 5. 10. / 심사기간: 2019. 6. 2. ~ 2019. 6. 7. / 게재 확정일: 2019. 6. 12.